

안테나

인천대공원 축구장, 쾌적하게 새 단장



인천대공원 내 축구장이 인조잔디를 새로 교체하고 시민들을 맞는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인천대공원 축구장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인천대공원 축구장은 지난 2009년 최초 조성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인조잔디 훼손 등 노후화로 이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고 시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인조잔디 교체 등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물론 풋살장 2개소 정비 및 휴게시설을 확충하는 등 전반적인 보수를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시설로 새 단장했다. 사전 예약 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인종삼 기자

인천시, 휴가철·태풍 대비 어항시설 점검



인천시는 18일부터 4주간 중구·강화군·옹진군에 위치한 총 15개 지방어항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휴가철 관광객 증가와 여름·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태풍에 대비 할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와 해당 군·구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 및 구조체 등의 손상·균열·위험 여부 등 시설물의 현 상태와 안전난간과 차마이·방충체 등 안전 관련 시설의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인종삼 기자

인천사서원, 영양보호사 감염병 교육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지역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힐링프로그램으로 소나무 버닝 도마만들기도 진행했다.

인천사서원 산하 장기요양원센터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인천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가 함께 했다.

교육은 호흡기 예방과 손 위생, 환자 배치, 소독·청소, 세탁물·폐기물 관리 등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내용과 전파 경로별 감염관리, 종사자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여기에 개인보호구 착용·탈의 실습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앞으로 오는 28일~다음달 9월25일 세 번 더 열린다. '감염병예방관리' '힐링프로그램' 두 과목을 2시간씩 진행한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나 교육 별도 방문 요양, 주·야간·단기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도 5명까지 수강 가능하다. 정원은 교과목별 30명이다.

시설장은 21일~다음달 18일 두 번에 걸쳐 감염병예방관리 교육과 '공감과 경청의 의사소통'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정원은 역시 30명이다.

인종삼 기자

'인천대교 희망 장학금' 기탁식 진행



인천대교(주)는 14일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인천대교 회의실에서 '2022년도 인천대교 희망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인천대교(주)와 재단은 지난 2019년에 '인천대교 희망 장학금'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영종지역 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20명을 선발해 100만원씩의 희망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4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기탁된 인천대교 희망장학금 2000만원 또한 영종지역 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20명을 선발해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인종삼 기자

GCF이사회, 코로나 후 대면 국제회의의 재개

인천시, 16~20일까지 '제33차 GCF이사회' 개최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논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녹색기후기금(이하 'GCF') 이사회가 16일부터 5일간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대면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입국제한 등으로

GCF이사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돼 사업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최근 방역지침 완화로 대면 이사회 개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GCF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재해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기후대응관련 금융국제기구로 지난 2013년 인천에 GCF사무국 본부가 등지를 틀었다.

이번 제33차 GCF이사회에서는 야니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프랑스) GCF

사무총장, 장 크리스토프 도넬리에(Jean Christophe DONNELLIER, 프랑스), 툴로우 엠마누엘 라마루(Tou Emamanuel RAMARU, 남아공) 공동의장을 비롯해 48개 이사국·이행기구·읍저버 등 관계자 350여명이 모여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GCF는 32차례의 이사회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자원관리, 친환경에너지 공급사업 등 196건의 사업(총 389억 달러)을 개도국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0억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호수 시 환경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 인천관광공사·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에게 인천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제33차 GCF이사회가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종삼 기자



미추홀구는 15일 국공립 스타디움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사진=미추홀구)

'국공립 스타디움어린이집' 개원

미추홀구, 아동 36명 보육  
공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미추홀구는 15일 국공립 스타디움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에는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어린

이집 연합회, 학부모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스타디움어린이집은 스타디움센터빌리티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한 것으로 지상1층 연면적 278.79㎡ 규모에 4개 보육실과 교사실·유희실 등 시설을 갖춰 36명 아동을

보육할 수 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승의1·3동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함에 따라 공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별처럼 빛나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승의1·3동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주안4동 주안4구역과 도시개발1구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도입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환 기자



인천시는 15일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주관으로 제1회 여성기업주간이자 여영향 인천지회 창립 제23주년을 기념해 '인천여성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지회)

여성기업주간... 여성기업인 한 자리에

'인천여성기업인대회' 개최  
여성기업 역할 다짐의 장

인천시는 15일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주관으로 제1회 여성기업주간이자 여영향 인천지회 창립 제23주년을 기념해 '인천여성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여성기업 주간'(매년 7월 첫째주)을 추진하기로 한 이후 첫 번째 행사로, 여성기업인들의 화합과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다짐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 이강구·유승분 시의회 의원, 윤종욱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선병 인천지방노동청장, 인천여성기업인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모범여성기업인 시상, 우수제품 전시회와 바자회 등을 비롯해 그간 경제성장에 기여한 여성기업을 격려·지원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서임수 여영향 인천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사업에

뛰어난 분들이 대다수였으나 지금의 2030세대들은 우수한 기술, 탄력적인 아이디어와 자신감을 무기로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인천시에 훌륭한 여성 기업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또,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제규모 100조 시대, 일하기 좋은 제2경제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시정부는 여성기업인에게 기업지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기업인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인함과 섬세함을 지닌 여성기업인께서 인천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17명의 모범여성기업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 중 △광성테크 주식회사 환경현 대표이사 △(주)나산팀버강은영 대표이사 △(주)테라에코 이정남 대표이사 3명이 인천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제품 전시회에는 여성기업인 17개 기업에서 제조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우수제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인종삼 기자

본격 휴가철 맞아 피서지 음식점 점검

인천시, 오는 26일까지  
빙과류 제조업 등 194곳

인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보양식 취급 음식점, 빙과류 제조업소 등 총 19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이달 18일~26일까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위생점검과 더불어 최근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방역관리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위생점검은 무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 및 보관, 냉장·냉동 시설의 정상작동 등 보관기준 준수여

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등을 중점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설 이용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여부 및 식기류 소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일상 속 자율 생활방역수칙 등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관리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번 휴가철 피서지 점검과 함께 풍곡수·빙면·식혜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이번 휴가철 점검은 식중독 예방과 코로나19 확진 증가세 억제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종삼 기자

제과점 빵 당류 낮추기 나서

'비만을 1위' 인천시  
당류 저감화 사업 추진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인천시가 올해는 전국 최초로 제과점 빵류를 대상으로 당류 저감화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시민의 균형적인 영양섭취를 위해 올해부터 빵류 1회 섭취량(70g) 기준 당 함유량을 3g 미만으로 줄이는 당류 저감화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개인 운영 제과점 20여 곳을 선정해 당류 저감화 기술을 지원 하는 것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백화점 입점 등 대기업 운영업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 당류 저감화사업 추진은 인천시민의 높은 당뇨병 진단율과 비만을 배경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년 지역

건강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21년 9.8%로 전국 17개 시·도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비만을(자가보고) 역시 34.5%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높았다.

시는 최근 당류 저감화 제과점 운영을 희망하는 2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당류의 위해성과 저감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저감화를 위한 제과·제빵 조리법과 기술을 지원한다. 교육 및 기술 이전은 협업기관인 대한제과협회 인천시 지회가 맡는다. 8월 현장평가를 통해 당류 저감화 참여 제과점으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당류를 낮춘 조리법으로 만든 빵을 전시할 진열대를 비롯해 필요한 위생 용품을 지원하고 관광공사의 인천투어 및 군·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해체를 소개하는 등 홍보·마케팅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인종삼 기자